

인본 소식



인본사회연구소가 창립 10년만에 부산의 중심 서면에 터를 잡은지 만 2년, 인본사회연구소는 내부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먼저 연구소 소장에 경성대 교수이자 환경운동가이며 언론인으로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김해창 교수가 부임 한 것이다. 부임 직후 김해창 소장은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과 정책을 연구해 오던 본회 도시안전센터 활동의 일환으로 에너지전환 운동에 박차를 가해 현 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대한 대 시민 인식조사를 비롯하여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더30Km포럼’을 결성, 부산지역 전체에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매월 포럼을 열고 대시민 홍보에 누구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더불어 부산시가 부산을 영어공용화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하자, 전국의 한글운동단체와 부산지역 문화 및 사회 단체가 결집하여 영어공용화도시의 허실을 규탄하는 것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 하나 반가운 일이 있다. 본회 설립자이며 초대 소장이었던 김영춘 전 해수부장관이 본회 이사로 함께 활동에 임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부산의 발전을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 설계에 앞장서던 ‘메가시티포럼’도 같은 공간에 입주하여 인본사회를 위한 더 큰 비상이 가능해졌다. 김영춘 이사



는 고신대 이병수 총장에 이어 본회 출간잡지 『인본세상』의 편집주간을 맡게 되어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는 잡지 발간이 기대된다.

국문학을 전공한 문학비평가이며 부산지역 문화운동의 중심에 있는 남송우 이사장을 비롯한 부산인문연대가 진행하는 부산인문학포럼은 벌써 3년째이다. 부산과 부산시민을 인문학 바다에 빠트리고 새로운 인문정신으로 세상을 구현해 보고자 하는 인문학단체들은 부산발 세계인문학대회를 꿈꾸고 있다. 금년 12월 9일 인문학포럼 참가자들과 진행자





들이 함께 모여 금년 사업을 평가하고 내년을 기대하며 돌아갔다. 무려 80여 개의 인문학 강좌가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다.

인본사회연구소는 인문학포럼의 전체 실무를 맡았고, 그와 별개로 인본부산gogo아카데미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였다. gogo아카데미는 올해 3기 5강좌, 4기 5강좌로 총 200여 명의 시민이 함께 부산 전역의 현장을 전문가의 생생한 수업과 함께 탐방하였다. 3기는 ‘부산과 민주주의의 길’을 주제로 부산지역 곳곳을 훑어보면서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했던 부산의 역사성과 시민성을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고, 4기는 ‘환경과 부산’을 주제로 하여 낙동강 하구언의 천혜 갯벌의 중요성과 동천을 중심으로 한 하천 이야기에서 부산과 부산산업의 성장 과정까지 돌아보았으며, 고리 원전과 탈원전에 대해서 공부하며 부산의 미래성장발전을 탐색하였다.

인본사회연구소는 부산시민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인본사회를 만들고자 노력 중이다. 인본에서는 시민들의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기부금제도를 활용, 금년 12월 기획재정부 지정 공익목적에 수행하는 공익단체로 재선정되었다. 지정기부금 단체 인본사회연구소에 관심과 사랑을 주신다면 인본사회, 시민이 안전한 사회, 부산이 바로 서는 사회를 한 걸음 더 앞당길 것이다.